

#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김소연(So-Yeon Kim)<sup>1</sup>, 이은주(Eun-Ju Lee)<sup>2</sup>

E-mail: sobi0923@naver.com, ejulee@deu.ac.kr

제1저자 동의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사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논문접수 2022.10.18  
최초심사 2022.10.18  
게재확정 2022.11.09

## ORCID

So-Yeon Kim  
https://orcid.org/0000-0002-1768-8724

Eun-Ju Lee  
https://orcid.org/0000-0001-6818-8220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김소연의 석사학위논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2022)을 요약·수정한 것임.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의미와 범주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성과를 분석함에 있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을 검토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183편의 국내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전반적인 연구추이 분석과 더불어 노드엑셀을 활용하여 확대된 내용분석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논의의 대상과 연구방법, 게재 학회지 등이 편중되어 있는 한계 또한 확인하였고, 향후 논의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and category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analyze its research results. To this end, the research scope of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was set by reviewing the definition, types, and subjects. A total of 183 journal articles were gathered, a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in two stages. In addition to the overall research trend analysis bas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an expanded content analysis and language network analysis were attempted using Node Excel.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began in earnest after 2006 and that the user-centered paradigm is gradually being applied. However, limitations confirmed that the subject of discussion, research methods, and journals were biased, and expanding the horizon of future discussion was suggested.

**Keywords:**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서비스, 연구동향, 언어 네트워크 분석, 내용분석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rchival services, research trends, language network analysis, content analysis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관리전문기관의 설립, 기록연구직 신설 및 전문 인력 채용,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 해당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배치기관 수가 2007년 63개 기관에서 2020년 630개 기관으로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국가기록원, 2021, 5). 이러한 기록관리 분야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기록관리학계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2000년 이후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 및 관련 단체들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기록관리학 분야와 관련된 학문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령 기록관리학 분야의 대표적 학회 지인 『한국기록관리학회지』의 시기별 게재논문 수를 비교한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9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5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24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69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게재 논문 수의 점진적 증가는 기록관리학 연구의 양적 성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기록관리학 연구의 양적 성장은 세부 영역인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2001년으로, 이후 논의가 활발해지더니 2019년에 이르러서는 약 180여 편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김건 외, 2013, 202; 임설희, 2021, 15). 연구별 조사 대상에 따른 오차는 차치하더라도, 관련 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며 축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2001년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단 2편에 불과하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누적된 연구결과에 대한 추적은 학문의 발전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오세훈, 2005, 380). 그렇다면보니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과 핵심 내용을 제시해 왔다(장윤미, 정연경, 2013, 26).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의 양적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분야의 전체 구조를 조망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적 범주가 광범위하기에 관련 연구에서 기록정보서비스의 범주를 먼저 도출하고, 이러한 범주에 기반하여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분석해보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의미와 범주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성과를 분석함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어떤 연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범주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용어사전과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정의, 유형, 대상의 내용을 검토한 후, 2회 이상 등장한 용어를 추출하여 이 영역의 핵심키워드로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논문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내용분석이란 자료를 분석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과 범주들을 결과물로 도출하는 연구방법으로, 많은 문헌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이미 생산된 텍스트를 양적 질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Krippendorff, 2004; 김성태, 2005, 3).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크게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먼저,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기본

적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이 처음 시작된 200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을 수집하여 발행연도, 세부주제, 게재 학회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학술논문으로 제한한 까닭은 학술지가 학계의 연구동향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연구물이기 때문이다(김신일, 한승희, 2001, 401). 특히 기록관리학 분야의 경우 학술발표집 논문, 학위논문이 학술논문과 중복적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술논문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노드엑셀(NodeXL Basic)을 활용하여 확대된 내용분석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이수상, 2014, 50).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를 단순히 양적 지표로 분석한 내용분석과 달리 텍스트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함으로써 키워드간의 관계까지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의 전체적인 방향을 조망하면서 어떠한 주제영역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어떤 키워드가 핵심키워드로 활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 1.3 선행연구 분석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한 국내 논문은 단 2편(김건 외, 2013; 임설화, 2021)에 불과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크게 3가지 테마로 압축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 기록관리학 전반에 걸쳐 논의한 연구동향 분석이다. 이 테마는 기록관리학 연구가 이루어진 초기에 수행된 연구들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에 대한 조망과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구체적으로 김희정(2006)의 연구를 시작으로 기록관리학 전반에 걸친 연구동향 분석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는 기록관리학 연구를 1980년대부터 10년을 주기로 분석함으로써 중점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후 수행된 김규환, 남영준(2009)의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의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의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영역과 연구시기, 게재 학회지, 연구자 소속 및 전공 변인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김희섭, 강보라(2018)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390편의 저자 키워드를 분석하여 기록관리학 연구 주제를 양적 측면, 영향력 측면, 확장성 측면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더해 기록관리학의 하위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동향 분석 논문이 두 번째 테마로, 연구동향 분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테마라 할 수 있다. 장로사, 김유승(2009)과 이소연(2011)은 기록관리학 세부영역 중 전자기록물 및 정보학 영역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고, 최재희(2011)는 기록물 평가론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이론과 실무의 조응을 통한 평가 영역의 활성화 및 다양한 기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설문원(2012)은 기록분류를 주제로 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과 특징, 한계를 밝혔으며, 김건 외(2013)는 73편의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정량 분석에서는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 수를 집계하였고 각 세부주제별 내용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의 발전의 지표가 되는 내용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강순애(2013)는 기록관리의 역사를 다룬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야별, 연도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고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임설화(2021)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된 총 182편의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기록관리학의 하위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동향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와 국외의 기록관리학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 세 번째 테마로, 연구동향 분석의 범위를 국외 학술지로 확장함으로써 향후 국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김희정(2005)은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학 분야 대표 학회지들에서 핵심 저자군을 선정하여 저자들 간의 동시인용빈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성환, 오효정(2018)은 8종의 온라인 공개

국제 학회지를 선정하고 국내학술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의 거시적 흐름과 나라별 차이를 규명하였다. 박희진(2014)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Archivaria」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북미 기록관리학의 주요 논제와 논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였으며, 향후 기록관리학 연구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록관리학 분야 연구동향 분석 논문들은 연구의 범위와 논의의 초점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만, 눈에 띄는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발행연도, 세부주제, 게재 학회지, 연구자 소속 유형 등의 양적인 지표로 중심으로 경향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자별 논의의 방향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공통적인 지표로 양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확대된 내용분석 방법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이 기록관리학 연구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록관리학 영역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살펴보았다.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2015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최이랑(2015)은 2004년에서 2013년까지 발표된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논문의 저자키워드와 저자의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고 네트워크로 시각화함으로써 키워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2020년에는 기록관리학의 하위 영역 중 기록조직 영역에 한정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존재하였다. 이은주, 노지현(2020)은 기록조직 영역의 논문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키워드와 그 관계를 통해 국내 기록조직의 의미와 지식 범주에 대해 고찰하고 기록조직 영역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특정 기록물을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연구도 있었는데, 박준형, 류범모, 오효정(2017)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바탕으로, 정상준, 윤보현, 오효정(2019)은 언론 보도자료에 나타난 대통령기록물 관련 사회적 이슈를 대상으로 핵심키워드와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기록관리학 관련 연구동향 분석은 논의의 범주를 논외로 하더라도 양적으로 크게 많지 않았 으며,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동향 분석은 공통된 지표를 활용하여 양적 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기록정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단 2편에 불과하여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였으며, 이들 논문 모두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기본적인 양적 분석에 더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핵심키워드 간의 관계를 분석한 뒤,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기록정보서비스의 개념적 범주

연구동향 분석은 어떤 기준으로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의 핵심키워드를 파악하고, 이러한 핵심키워드를 활용하여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논문의 수집 범위를 설정하였다.

### 2.1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 시대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사전과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를 근간으로 개념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기록학회의 『기록학 용어 사전』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이나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의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이하 SAA 용어사

전)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자들의 관심에 맞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 정의내렸다.

다음으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00년대 후반 Daniels(1984)는 기록관에서의 정보서비스를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정보 혹은 소장 기록물로부터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보며 소장 기록물에 대한 접근, 복사,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돕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Cox(1992)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 기록물로부터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Pugh(1992)는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아키비스트의 활동이라 정의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Pugh(2005)는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아카이브즈 이용자가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해 2010년대에 Duff & Yake(2017)은 이용자, 아키비스트, 기록 및 기록시스템 간 다양한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 확장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필요성은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웹 환경의 진화는 기록관이 새로운 이용자에게 기록관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고 기존의 이용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카이브 2.0 서비스’의 개념을 등장시켰다(김지현, 2018, 328). 대표적으로 Yake(2006)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기록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도 새로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를 설명함에 있어 ‘평가’와 ‘법·제도·정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법·제도·정책과 평가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평가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본 결과, Pugh(2005)는 기록관의 이용을 나타내는 양적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아키비스트의 서비스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와 기록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ugh(2004)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로 이용자, 소장 기록물과 이용제한, 지적 접근과 기록정보서비스, 서비스 이용요금, 물리적 접근과 이용조건, 정보 이용, 대출 요소로 제안하였다.

## 2.2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 역시 학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구분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김지현, 2018, 309). 따라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안한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Cox(1992)는 기록관의 이용자 서비스를 참고서비스와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전자에는 복사, 열람, 이용자 면담을 통한 참고서비스, 접근정책에 따른 기록공개, 이용신청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자에는 출판, 워크샵, 전시, 견학, 강의, 기관 기념일 축하 행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Yake(1994)은 서비스 유형을 검색, 열람, 복사, 대출, 참고서비스와 기록관 업무 및 정책을 소개하는 보고서, 기록관 또는 서고 안내서 출판, 원격이용자를 위한 소장 기록물 목록의 온라인 제공, 소장 기록물에 초점을 맞춘 전시와 심포지엄, 소장 기록물을 이용한 연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Cook(1999)은 검색, 열람, 예약, 복사, 대출, 서면질의 처리 등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용자들이 영구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참고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며, 출판, 전시활동, 교육적 활용, 견학, 워크샵, 세미나 등을 포함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더해 설문원(2008)은 국가보존기록관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를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로 나누었다. 검색 및 열람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쉽고 안전하게 소장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부가가치 서비스는 기록의 가공, 해석 작업 등을 통해 각종 편찬물, 콘텐츠, 전시물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활용촉진 서비스는 기록과 기록관리, 기록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향상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 2.3 기록정보서비스의 대상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정보서비스의 대상을 규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록관 등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록정보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의 대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SAA 용어사전을 살펴보았지만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어 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힌 기록정보서비스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Pugh(2005)는 이용자 유형을 크게 직업적 이용자와 비직업적 이용자로 구분하였다. 전자에는 모기관의 직원, 전문직 이용자, 학자, 학생, 교사 또는 대학 강사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족보학자, 아마추어 역사가 및 기록 수집가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Yeo(2005)는 기록 이용자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특정한 직업을 가진 이용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용자 세분화 기법을 통해 이용자 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정경희(2007)도 Yeo의 주장을 수용하여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이용자 세분화를 위한 변수를 인구통계 변수, 지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이용 변수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 2.4 기록정보서비스의 범주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연구동향 분석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에 대한 설명에서 의미 있는 명사형 용어만을 추출한 결과, 총 60개의 용어가 추출되었다. 60개의 용어를 빈도에 따라 정리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에서 추출한 용어

추출된 용어	빈도	추출된 용어	빈도	추출된 용어	빈도	추출된 용어	빈도
RSS	2	백락	1	온라인 서비스	4	지적접근	1
SNS	2	면담	3	웹 2.0	2	직업적 이용자	1
Wiki	2	무결성	1	이벤트	2	참고서비스	4
가치	1	법	5	이용자 교육	3	출판	6
검색	6	복사	5	이용자 세분화 기법	2	태그	1
검색가이드	4	부가가치서비스	2	이용자 요구	5	편익	1
검색도구	3	비밀분류	1	이용자연구	6	평가도구	2
견학	3	비직업적 이용자	1	이용제한규정	1	폭소노미	1
교수지원	2	상호작용	1	재사용	1	품질평가	2
교육용콘텐츠	2	서비스평가	3	저작권	2	플리커	1
교육프로그램	6	아웃리치서비스	2	전시	6	학습지원	2
기록정보서비스	7	아카이브2.0서비스	3	접근정책	4	행사	2
기록콘텐츠	3	연구지원	3	정보공개	2	홍보	4
대인관계기법	1	열람	5	정책	5	활용촉진서비스	3
대출	4	오프라인 서비스	5	제도	5	효율성	1

60개의 용어 중 단 1회만 등장한 용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도출된 총 60개의 용어 중 최소 2회 이상 등장한 용어를 선별하여 44개의 용어를 선정하였고, 이들 용어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논문 검색키워드 선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범주

근거	근거에서 2회 이상 등장한 용어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기록정보서비스, 법, 제도, 정책, 접근정책, 저작권, 정보공개, 서비스 평가, 평가도구, 품질평가, 아카이브 2.0 서비스, 웹 2.0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	검색, 열람, 복사, 대출, 검색도구, 검색가이드, 온라인 서비스, 오프라인 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전시, 기록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이용자 교육,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연구지원, 활용촉진서비스, 이벤트, 행사, 견학, 홍보, 출판, 참고서비스, 아웃리치서비스, Wiki, SNS, RSS
기록정보서비스의 대상	이용자 연구, 이용자 세분화 기법, 이용자 요구,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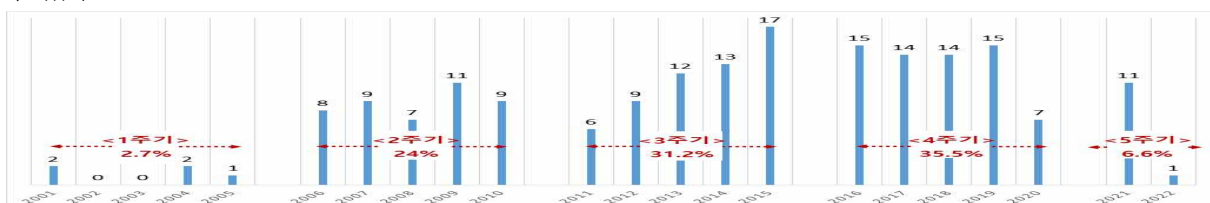
### 3. 학술논문 생산 현황

#### 3.1 분석대상 수집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표 2>의 44개 키워드를 활용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이하 KCI)을 검색하였다. 검색 시에는 학술논문만을 수집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44개의 키워드에는 보편적인 용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색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건제한 검색을 활용하였는데, 국내에서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이 처음 발행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논문들(김건 외, 2013, 202; 임설화, 2021, 7)에 근거하여 ① 2001년 이후로 발행연도를 제한하되, ② 기록관리학을 포함한 문헌정보학 영역으로 검색(주제)범위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③ 내용분석 시 학술논문의 원문, 초록, 저자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검색전략에 따라 수집된 논문은 제목이나 저자키워드, 초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기록정보서비스를 중심 주제로 삼은 연구만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0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발표된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학술논문은 총 183편이었다.

#### 3.2 학술논문 생산 현황

기록정보서비스 학술논문의 생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발행연도, 세부주제, 게재 학회지,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발행연도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2001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을 단위로 살펴보았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1주기(2001년~2005년)에는 5편(2.7%), 2주기(2006년~2010년)에는 44편(24%), 3주기(2011년~2015년)에는 57편(31.2%), 4주기(2016년~2020년)에는 65편(35.5%), 5주기(2021년~2022년)에는 12편(6.6%)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5주기(2021년~2022년)는 2년에 불과한 기간만이 해당되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논문수가 확인된 것을 논외로 하고,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표논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림 1>에서처럼 2006년을 기점으로 논문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05년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처음으로 선발되고, 2006년에 해당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록관 현장에서 서비스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 발행연도별 논문 현황

둘째, 세부주제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부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서 도출한 44개의 키워드를 선행연구에 따라 유사한 영역으로 그룹화하면 <표 3>과 같이 총 8개의 세부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기록정보서비스 세부주제

검색 키워드	기록정보서비스 세부주제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서비스 일반
법, 제도, 정책, 접근정책, 저작권, 정보공개	법·제도·정책
검색, 열람, 복사, 대출, 검색도구, 검색가이드, 온라인 열람, 오프라인 열람, 참고서비스	검색 및 열람서비스
부가가치서비스, 전시, 기록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이용자 교육, 교수지원,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연구지원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이벤트, 행사, 견학, 홍보, 출판, 아웃리치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서비스 평가, 평가도구, 품질평가	서비스 평가
이용자 연구, 이용자 세분화 기법, 이용자 요구, 면담	이용자 연구
아카이브 2.0 서비스, Wiki, SNS, RSS, 웹 2.0	아카이브 2.0 서비스

<표 3>의 세부주제 영역에 '기타'를 더해 총 9개 범주로 나누어, 세부주제별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부가가치 서비스(52편) > 법·제도·정책(27편) > 이용자 연구(26편) > 서비스 평가(23편) 등의 순서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 수가 가장 적었던 주제는 활용촉진 서비스(7편)로 전체 연구의 3.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법·제도·정책 혹은 콘텐츠 개발, 전시서비스 활성화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와 관련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출발하여, 2006년을 기점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세부영역에 걸쳐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제도·정책과 부가가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6년에 들어서 증가한 서비스 평가와 이용자 연구 논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연구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발행연도	기록정보 서비스 일반	법·제도·정책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서비스 평가	이용자 연구	아카이브 2.0 서비스	기타	합계
2001-2005	1	1	0	1	0	1	1	0	0	5
2006-2010	4	11	3	11	0	5	7	3	0	44
2011-2015	6	7	6	22	2	6	3	4	1	57
2016-2020	7	7	3	14	4	10	13	2	5	65
2021-2022	2	1	0	4	1	1	2	1	0	12
전체	20 (10.9%)	27 (14.7%)	12 (6.6%)	52 (28.4%)	7 (3.8%)	23 (12.6%)	26 (14.2%)	10 (5.5%)	6 (3.3%)	183 (100.0%)

셋째, 학회지별 기록정보서비스 발표 논문 수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그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86편(47.0%)으로 가장 많았고, 『기록학연구』 41편(22.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편(10.9%), 『정보관리학회지』 16편(8.7%)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록과 정보·문화연구』와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와 같은 학회지에도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문이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학회지별 논문 현황

발행연도	기록과정보· 문화연구	기록학연구	디지털문화 아카이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합계
2001-2005	0	0	0	1	2	0	0	2	5
2006-2010	0	12	0	5	21	3	1	2	44
2011-2015	0	15	0	2	30	4	1	5	57
2016-2020	2	12	0	7	25	3	5	11	65
2021-2022	0	2	1	1	8	0	0	0	12
전체	2 (1.1%)	41 (22.4%)	1 (0.6%)	16 (8.7%)	86 (47.0%)	10 (5.5%)	7 (3.8%)	20 (10.9%)	183 (100.0%)

그러나 이러한 발표 논문 현황은 학회지별 전체 논문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회지별 전체 논문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 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표 6〉 참조).

〈표 6〉 학회지별 전체 논문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 현황

발행연도	기록과정보· 문화연구	기록학연구	디지털문화 아카이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합계
전체 논문 수	35	703	22	1,154	620	1,614	1,403	994	6,545
기록정보서 비스 논문 수	2	41	1	16	86	10	7	20	183
전체 중 기록 정보서비스 논문 비율	5.7%	5.8%	4.5%	1.4%	13.9%	0.6%	0.5%	2.0%	2.8%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한국기록관리학회지』가 전체 논문 수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 된 학회지로 나타났으며, 전체 620편 중 86편(13.9%)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록학연구』에 게재된 703편 중 41편(5.8%),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994편 중 20편(2.0%)이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에 창간된 『기록과 정보·문화연구』나 2018년에 창간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는 비교적 최근에 창간된 학회지이기 때문에 전체 논문 수가 타 학회지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논문 수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학회지별 게재 논문 수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 수의 비율은 0.5%~13.9%로 학회지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였으나, 학회지를 불문하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방법별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표 7〉 참조). 이 때 2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이 사용된 경우 각각 복수응답으로 집계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이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법 113편(36.3%), 사례연구법 97편(31.2%)으로, 전체 연구에 약 70%에 달하였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문헌연구법과 사례연구법이 다수의 연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연구방법별 논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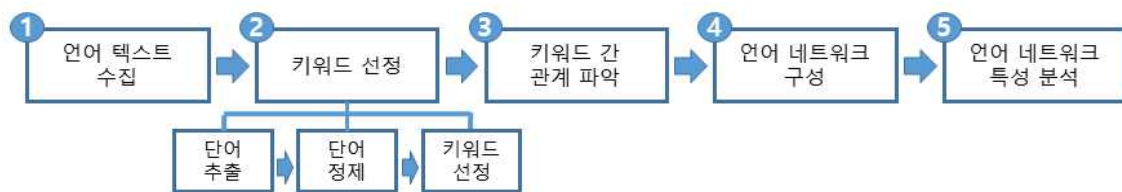
발행연도	관찰법	면담법	문헌 연구법	사례 연구법	설문지법	실험 연구법	웹사이트 로그분석	적용 연구법	합계
2001-2005	1	1	4	2	1	0	0	1	10
2006-2010	2	5	25	21	6	0	0	3	62
2011-2015	1	18	34	37	9	1	2	0	102
2016-2020	0	13	42	31	20	1	4	4	115
2021-2022	0	4	8	6	3	0	1	0	22
전체	4 (1.3%)	41 (13.2%)	113 (36.3%)	97 (31.2%)	39 (12.5%)	2 (0.6%)	7 (2.3%)	8 (2.6%)	311 (100.0%)

이상의 학술논문 생산 현황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01년에 시작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2006년 이후로 다양한 세부주제 영역으로 확대되어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 중, 부가가치 서비스와 법·제도·정책 영역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며, 이용자 연구는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기록정보서비스 논문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에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었고 일부 논문은 인접학문인 문헌정보학 영역 학회지에도 게재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논문 수 대비 기록정보서비스 논문 수가 평균 2.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연구방법별로는 문헌연구법과 사례연구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방법으로 나타났다.

## 4. 언어 네트워크 분석

### 4.1 데이터 전처리

3장에서 양적 지표에 따른 분석을 통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기본적인 동향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확대된 내용분석인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해 보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용어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맥락과 의미 등 연구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2> 순서에 따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언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는 키워드 추출 및 선정작업(<그림 2>의 ①~② 단계)이라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위해 KISTI의 Knowledge Matrix Plus(이하 KM+)를 활용하였다.



〈그림 2〉 언어 네트워크 분석 과정(이수상, 2014, 55 재구성)

먼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언어 텍스트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183편을 대상으로 저자키워드와 초록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저자키워드와 초록을 대상으로 분석을 위한 키워드를 선정하였다. 키워드 선정은 <그림 2>의 ②에서

와 같이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째, '단어의 추출 작업'이다. 이 작업을 위해 KM+를 활용하여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저자키워드에서는 총 659개, 초록에서는 4,163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둘째, '단어의 정제 작업'이다. 정제 작업은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록학 용어 사전』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저자키워드는 325개, 초록에서 추출한 단어는 1,238개로 정제되었다. 구체적인 단어 정제 작업 사례는 <표 8>과 같다.

<표 8> 단어 정제 작업 사례

용어 통제 기준	사례	용어 통제 기준	사례
동의어/유사어	기록관서비스, 기록서비스 → 기록정보서비스 컨텐츠, 콘텐츠 → 콘텐츠 기록콘텐츠 → 기록정보콘텐츠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제 → 정보공개청구제도	영어 번역	Web2.0 → 웹2.0 Outreach Service, 아웃리치서비스 → 확장서비스 Contents → 콘텐츠 raw data → 원자료 access → 접근
단수/복수	아카이브즈 → 아카이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 NARA 영국 국립기록보존소 → TNA 호주 국립기록보존소 → NAA
조사 삭제	웹과, 웹에, 웹을 → 웹2.0 이용자중심의 → 이용자중심 검색도구로 → 검색도구	기타 제외 용어	일반적인 용어: '본', '대한', '위해', '최근', '관련', '기반', '전제', '생각', '성공', '탈피' 수를 나타내는 용어: '첫째', '둘째', '제2장' 의미 없는 숫자 또는 날짜: '182명', '2003년도에'

뒤이어 진행한 단계는 '키워드 선정 작업'이다. 이 작업에서 분석대상 키워드를 선정하는 근거는 고빈도 단어나 가중치가 높은 단어와 같이 해당 텍스트의 주제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에 KM+를 활용하여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단어의 빈도분석을 수행한 후 고빈도 단어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저자키워드는 3개 이상의 문헌에서 3회 이상 등장한 단어인 총 39개, 초록에서 추출한 단어는 100회 이상 등장한 단어인 총 29개가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들 중에는 '기록관', '기록물', '기록관리', '아카이브'와 같은 보편적인 기록관리 용어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단어는 분석대상 키워드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대상 키워드는 저자키워드에서 추출한 총 35개의 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총 26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였다(<표 9>, <표 10> 참조).

<표 9> 저자키워드에서 선정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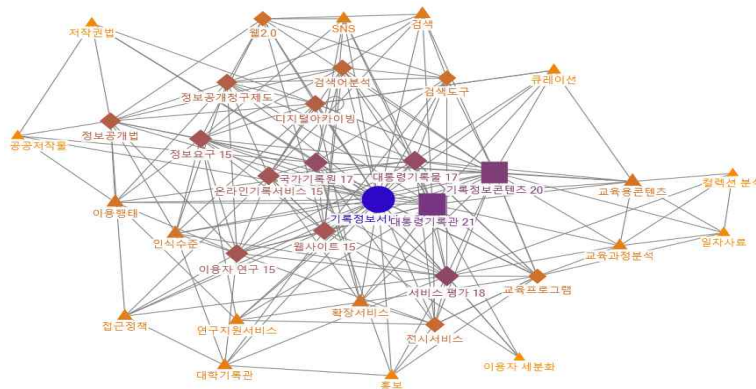
순위	저자키워드	문헌수	빈도	순위	저자키워드	문헌수	빈도	순위	저자키워드	문헌수	빈도
1	기록정보서비스	73	77	13	디지털아카이빙	12	27	25	인식수준	6	7
2	기록정보콘텐츠	23	56	14	웹사이트	10	25	26	대학기록관	7	7
3	서비스평가	23	44	15	정보요구	11	23	27	홍보	5	7
4	전시서비스	17	41	16	교육과정분석	10	23	28	검색어분석	6	6
5	정보공개법	20	40	17	접근정책	10	17	29	웹2.0	6	6
6	대통령기록관	22	40	18	SNS	12	16	30	검색	4	5
7	국가기록원	22	39	19	검색도구	11	15	31	공공저작물	4	5
8	온라인기록서비스	15	38	20	교육용콘텐츠	6	10	32	이용자세분화	4	5
9	교육프로그램	13	32	21	이용행태	5	9	33	큐레이션	3	3
10	정보공개청구제도	12	31	22	저작권법	5	8	34	컬렉션분석	3	3
11	대통령기록물	16	30	23	연구지원서비스	5	8	35	일차사료	3	3
12	이용자연구	13	30	24	확장서비스	7	7				

〈표 10〉 초록에서 선정한 키워드

순위	초록 키워드	문헌수	빈도	순위	초록 키워드	문헌수	빈도	순위	초록 키워드	문헌수	빈도
1	이용자	167	291	10	검색효율	98	150	19	전시서비스	93	111
2	기록정보서비스	136	242	11	국가기록원	145	150	20	보존기록	88	110
3	이용	137	236	12	주제서비스	96	148	21	확장서비스	85	108
4	웹사이트	129	185	13	교육프로그램	127	133	22	이용행태	83	108
5	정보요구	120	181	14	검색	96	130	23	온라인기록서비스	74	105
6	접근	133	171	15	교육	121	129	24	대통령기록관	72	104
7	정보공개	101	159	16	대통령	87	126	25	접근정책	88	100
8	평가	116	153	17	이용자연구	125	121	26	웹	87	100
9	기록정보콘텐츠	130	150	18	정보공개청구제도	109	113				

## 4.2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및 노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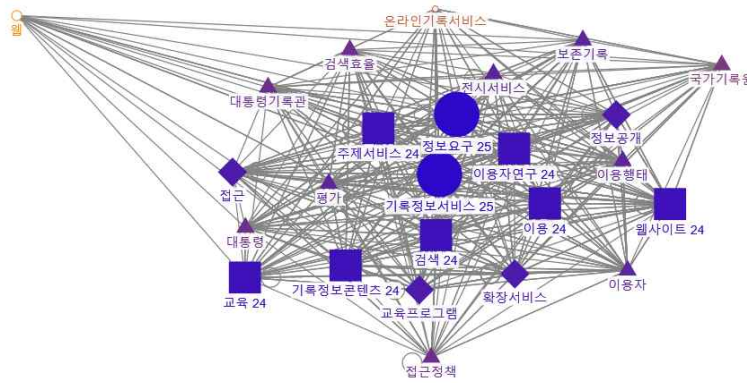
언어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함으로써 키워드간의 관계까지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엑셀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시도하되,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저자키워드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시도한 결과, <그림 3>와 같이 35개의 저자키워드들은 총 370개의 링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보편적으로 언어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위치를 분석하면,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노드는 언어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고 연결정도가 낮아질수록 가장 자리에 위치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분석하면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기록정보서비스’(31)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21)과 키워드 간의 연결 구조, 그리고 ‘기록정보콘텐츠’(20)와 키워드들 간의 연결 구조가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서비스 평가(18), 국가기록원(17), 대통령기록물(17), 온라인기록서비스(1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정도를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허브 노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저자키워드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며, 기록정보콘텐츠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평가 등이 주요 테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3회 이상 출현한 저자키워드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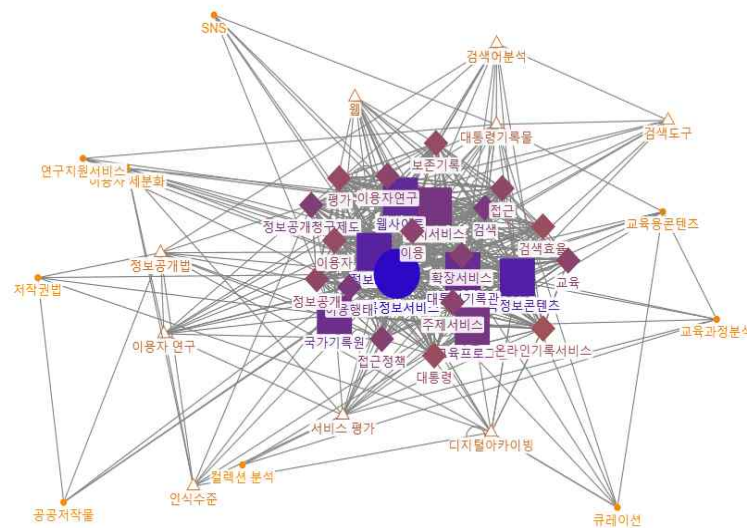
1) 언어 네트워크를 시각화할 때 노드의 모양을 연결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연결정도 30이상은 원형, 20이상은 사각형, 10이상은 다이아몬드형, 1이상은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초록에서 100회 이상 출현한 26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그림 4>와 같이 26개의 초록 키워드들은 총 622개의 링크로 연결되었으며,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전체 네트워크는 ‘기록정보서비스’(25)와 ‘정보요구’(25)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제서비스’(24)는 정보요구, 검색효율, 평가 등의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용자연구(24)는 정보요구, 이용행태, 정보공개, 확장서비스 등의 키워드와, 기록정보콘텐츠(24)는 교육, 교육프로그램, 검색, 평가 등의 키워드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초록에서는 정보요구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제서비스와 이용자 연구라는 키워드가 핵심 단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100회 이상 출현한 초록 키워드의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를 종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이 ‘기록정보서비스’(45)를 중심으로 ‘기록정보콘텐츠’(37), ‘정보요구’(36), ‘웹사이트’(34), ‘대통령기록관’(33), ‘국가기록원’(32), ‘전시서비스’(30), ‘교육프로그램’(30) 등의 순으로 높은 연결정도를 가져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네트워크

2) 연결정도가 25인 노드는 원형, 24인 노드는 사각형, 23인 노드는 다이아몬드형, 20~22인 노드는 삼각형, 10이상인 노드는 점으로 나타내었다.

요컨대 저자키워드와 초록에서 등장한 용어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금까지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이에 따른 주제서비스 개발 및 제공, 나아가 기록정보콘텐츠의 개발 등이 주된 테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3 중심성 분석

앞서 도출한 3가지의 언어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확인하기 위해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중심성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연결 중심성이란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갖고 있는지를 정량화한 지표이며,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접 중심성이란 각 키워드 간의 연결 거리를 정량화한 지표로, 근접 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전체 분포에서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개 중심성이란 특정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 사이의 중계 역할을 하는 정도를 정량화한 지표이며, 네트워크 내에서 주요 매개 키워드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한다(황재교 외, 2019, 167-168).

먼저, 저자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여 35개의 저자키워드를 순위별로 나열하였다(<표 11> 참조).

<표 11> 저자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1	기록정보서비스	31	기록정보서비스	0.027	기록정보서비스	244.799
2	대통령기록관	21	대통령기록관	0.021	기록정보콘텐츠	89.046
3	기록정보콘텐츠	20	기록정보콘텐츠	0.021	서비스평가	84.676
4	서비스평가	18	서비스평가	0.020	대통령기록관	83.584
5	국가기록원	17	국가기록원	0.020	국가기록원	57.179
6	대통령기록물	17	대통령기록물	0.020	대통령기록물	37.604
7	온라인기록서비스	15	웹사이트	0.019	교육용콘텐츠	28.552
8	웹사이트	15	온라인기록서비스	0.019	웹사이트	25.857
9	이용자연구	15	이용자연구	0.019	정보공개법	21.459
10	정보요구	15	정보요구	0.018	정보요구	21.104
11	정보공개청구제도	13	정보공개청구제도	0.018	이용자연구	20.295
12	디지털아카이빙	13	전시서비스	0.018	온라인기록서비스	18.563
13	정보공개법	13	검색어분석	0.018	교육프로그램	18.096
14	검색어분석	12	정보공개법	0.017	디지털아카이빙	15.743
15	전시서비스	11	교육프로그램	0.017	정보공개청구제도	13.723
16	교육프로그램	10	디지털아카이빙	0.017	전시서비스	8.560
17	검색도구	10	검색도구	0.017	웹2.0	8.466
18	웹2.0	10	교육용콘텐츠	0.017	인식수준	7.863
19	교육용 콘텐츠	9	웹2.0	0.017	교육과정분석	7.609
20	인식수준	9	인식수준	0.017	이용행태	7.337
21	확장서비스	9	확장서비스	0.017	검색어분석	7.013
22	이용행태	9	이용행태	0.016	확장서비스	5.640
23	검색	8	검색	0.016	검색도구	5.333

3) 연결정도 40이상은 원형, 30이상은 사각형, 20이상은 다이아몬드형, 10이상은 삼각형, 1이상은 점으로 나타내었다.

24	대학기록관	7	대학기록관	0.016	대학기록관	2.967
25	접근정책	7	접근정책	0.016	일차사료	2.529
26	연구지원서비스	7	홍보	0.016	접근정책	2.221
27	SNS	7	큐레이션	0.016	홍보	2.100
28	교육과정분석	7	연구지원서비스	0.016	연구지원서비스	2.019
29	홍보	6	SNS	0.016	검색	1.611
30	큐레이션	6	교육과정분석	0.016	큐레이션	1.508
31	공공저작물	5	이용자세분화	0.015	컬렉션분석	1.470
32	저작권법	5	공공저작물	0.015	SNS	1.453
33	일차사료	5	저작권법	0.015	공공저작물	1.067
34	이용자세분화	4	일차사료	0.013	저작권법	0.952
35	컬렉션분석	4	컬렉션분석	0.013	이용자세분화	0.000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 대통령기록관 > 기록정보콘텐츠 > 서비스평가 > 국가기록원 등의 순으로 상위에 나타났으며, 매개 중심성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 > 기록정보콘텐츠 > 서비스평가 > 대통령기록관 > 국가기록원 등의 순으로 상위에 나타났다. 이에 더해, 세 가지 중심성 지표에서 5순위까지의 저자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모두 '기록정보서비스'가 최상위에 있어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진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평가'가 공통적으로 상위에 속해 있어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서 높은 중심성을 가지는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중심성에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교육용콘텐츠', '정보공개법'이 높은 매개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가 여러 키워드 간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 두 개의 키워드가 핵심적인 고리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 역시 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26개의 키워드를 순위화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1	기록정보서비스	25	기록정보서비스	0.040	기록정보서비스	1.807
2	정보요구	25	정보요구	0.040	정보요구	1.807
3	주제서비스	24	기록정보콘텐츠	0.038	기록정보콘텐츠	1.718
4	기록정보콘텐츠	24	이용자연구	0.038	이용자연구	1.718
5	이용자연구	24	주제서비스	0.038	주제서비스	1.718
6	웹사이트	24	교육	0.038	대통령기록관	1.670
7	이용	24	검색	0.038	교육	1.668
8	교육	24	보존기록	0.038	검색	1.668
9	검색	24	이용	0.038	정보공개	1.668
10	확장서비스	23	웹사이트	0.038	보존기록	1.634
11	교육프로그램	23	이용자	0.038	국가기록원	1.623
12	정보공개	23	대통령기록관	0.037	대통령	1.579
13	접근	23	정보공개	0.037	이용	1.521
14	이용행태	22	대통령	0.037	교육프로그램	1.478
15	평가	22	교육프로그램	0.037	웹사이트	0.999
16	전시서비스	22	확장서비스	0.035	이용자	0.999

17	이용자	22	접근	0.037	확장서비스	0.955
18	보존기록	22	검색효율	0.037	이용행태	0.791
19	검색효율	21	국가기록원	0.036	접근	0.655
20	접근정책	21	이용행태	0.036	검색효율	0.655
21	대통령기록관	21	평가	0.036	평가	0.505
22	대통령	21	전시서비스	0.036	전시서비스	0.505
23	국가기록원	20	접근정책	0.034	정보공개청구제도	0.505
24	정보공개청구제도	18	정보공개청구제도	0.033	접근정책	0.464
25	온라인기록서비스	16	온라인기록서비스	0.031	온라인기록서비스	0.405
26	웹	12	웹	0.028	웹	0.316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초록에서 추출한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와 ‘정보요구’가 최상위로 나타나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 먼저,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기록정보서비스 = 정보요구 > 기록정보콘텐츠 = 이용자 연구 = 주제서비스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 중심성은 일부 결과에서 상이한 부분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 = 정보요구 > 주제서비스 = 기록정보콘텐츠 = 이용자 연구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으며, ‘웹사이트’, ‘이용’, ‘확장서비스’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 다른 키워드와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결 중심성은 다른 키워드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으로, 주제서비스, 기록정보콘텐츠 등의 단어가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의제와 담론에 대한 논리 구축 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5. 결론

기록정보서비스와 관련하여 2001년 국내 학술논문이 처음 발표된 이래 어느덧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기록관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근대기록관의 설치와 함께 기록전문가의 배치와 양성이 체계적이었으며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국내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다소 늦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김희정, 2007, 130). 그러나 1999년 관련 법이 제정되고, 2007년 해당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국내 기록관리 현장과 관련한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축적되어 왔지만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을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단 2편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정의, 유형, 대상을 중심으로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의 범위를 정리하고, 논의의 초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발표된 학술논문 183편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에서는 발행연도, 세부주제, 게재 학술지, 연구방법과 같은 양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에 더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키워드와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제 연구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연구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확장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간략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2001년부터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5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6년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늦은 시작에도 불구하고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약진은 두드러졌으며, 세부주제 또한 콘텐츠의 개발에서부터 기록정보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검색 및 열람서비스, 나아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기록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비스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특히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법·제도·정책과 관련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기세가 강했던 반면, 2016년 이후부터는 이용자 연구, 서비스 평가 관련 연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패러다임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지표와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편중된 논의’였다. 가령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고빈도 단어이며 높은 중심성을 보여 많이 연구된 키워드인 반면, ‘대학기록관’은 저빈도 단어로 나타났으며, ‘대통령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연구는 많았지만 ‘공공저작물’, ‘일차사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는 특정 기관(가령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이나 특정 기록물(가령 대통령기록물), 특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나 대통령기록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각 기록관 단위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논의를 풀어나가기 위한 연구방법 또한 문헌연구나 사례연구법이 주된 방법이었고, 게재 학회지 역시 『기록관리학회지』나 『기록학연구』와 같이 주제집중성이 강한 학회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중요성이 크거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나 테마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현장의 분명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가 기록관리 현장의 보편적인 문제해결의 근거를 제공하고 발전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테마에 편중된 논의가 아닌 주제, 대상, 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 2013년에 발표된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논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문헌연구법과 사례연구법에 치중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김건 외, 2013, 203).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다양한 시도’라 여겨진다. 향후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논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각 기록관 등으로 확장하되, 기록 이용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사례분석, 개발제안, 서비스의 실증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에서 실제로 다룬 내용과 의의 등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못했기에 논의에 있어 분명한 한계점을 가질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기록정보서비스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긍정적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순애 (2013). 기록관리의 역사에 관한 국내의 연구 동향-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국가기록원 (2021). 2021년도 국가기록원 주요통계연보. 대전: 국가기록원.
- 김건, 김수정, 윤은하, 한희정 (2013). 국내 기록정보서비스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김규환, 남영준 (2009).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회지 논문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김성태 (2005). 국내 내용분석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 및 제언. 커뮤니케이션 이론, 1(2), 39-67.
- 김성환, 오효정 (2018). 온라인 공개 국제학술지 기반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지리적 시간적 비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65-189.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65>
- 김신일, 한승희 (2001). 평생교육학- 동향과 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지현 (2018). 기록정보서비스: 기록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한국기록학회 편.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은글터, 305-348.
- 김희섭, 강보라 (2018). 『한국기록관리학회지』 논문의 연구 주제 분석-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183-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김희정 (2005). 저자 동시인용분석에 의한 국내외 기록관리학 분야의 지적구조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07-224. <https://doi.org/10.4275/KSLIS.2005.39.3.207>

- 김희정 (2006). 국내외 기록관리학 연구영역의 시계열적 분석 및 확장성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5-25.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2.005>
- 김희정 (2007). 국외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 및 역할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129-143.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1.129>
- 박준형, 류범모, 오효정 (2018). 시계열 기반 국내 기록관리학 토픽 트렌드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박희진 (2014). Archivaria 리뷰를 통한 국외 기록관리학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3, 10-19.
- 설문원 (2012).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 오세훈 (2005).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회지 논문 및 인용문헌 분석을 통한 연구동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이소연 (2011). 국내 전자기록 연구의 동향 분석-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49>
- 이은주, 노지현 (2020). 국내 기록조직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임설화 (2021). 기록정보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장로사, 김유승 (2009). 한국의 기록관리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정보학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87-100.
- 장윤미, 정연경 (2013). 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25-4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025>
- 정경희 (2007). 시장세분화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3), 277-296.  
<https://doi.org/10.16981/kliiss.38.3.200709.277>
- 정상준, 윤보현, 오효정 (2019). 언어 네트워크 기반 대통령기록물 관련 이슈 및 매체별 특성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81-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1.181>
- 최이랑 (2015).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최근 10년간(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최재희 (2011). 국내외 기록물 평가론 연구 동향-회고와 전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7-2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07>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황재교, 박재우, 고용신, 이창범, 황재식 (2019). 중심성 분석을 이용한 2018년 판보로 국제 에어쇼 참가업체 기술동향 분석. 한국신학기술학회논문지, 20(8), 164-173. <https://doi.org/10.5762/KAIS.2019.20.8.164>
- Cook, M. & Griffin, A. (1999). Managing Archives. 오향녕 옮김 (2002).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서울: 진리탐구.
- Cox, R. J. (1992). Managing Institutional Archives. New York: Greenwood Press.
- Daniels, M. F. (1984). A Modern Archives Reader. District of Columbi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Duff, W. & Yakel, E. (2017). Archival Interaction. In MacNeil & Eastwood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2nd ed. CA: Libraries Unlimited.
- Krippendorff, K. (2004).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Recommendation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3), 411-433.

<https://doi.org/10.1111/j.1468-2958.2004.tb00738.x>

- Pugh, M. J. (1992).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Illinoi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Pugh, M. J. (2004).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설문원 옮김 (2004). *기록정보서비스*. 서울: 진리탐구.
- Pugh, M. J. (2005). *Providing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vailable: <https://dictionary.archivists.org/>
- Yakel, E. (1994). *Starting an Archives*. Illinoi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Yakel, E. (2006). Inviting the user into the virtual archives. *OCLC Systems & Services: International digital library perspectives*, 22(3), 159-163. <https://doi.org/10.1108/10650750610686207>
- Yeo, G. (2005). Understanding users and use: a market segmentation approach.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6(1), 25-53. <https://doi.org/10.1080/0003981050004742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Ro-Sa & Kim, You-Seung (200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in Korea: Focused on the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87-100.
- Chang, Yun-mee & Chung, Yeon-Kyoung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1), 25-44.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1.025>
- Choi, Jae-Hee (2011). Research trends in archival appraisal science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7-2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07>
- Choi, Yi-Lang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archival studies in Korea: Focused on Research Papers between 2004 and 201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3, 147-177. <https://doi.org/10.20923/kjas.2015.43.147>
- Hwang, Jae-Gyo, Park, Jae-Woo, Ko, Yong-Sin, Lee, Chang-Bum & Hwang, Jae-Sik (2019). Analysis results in technical trends of 2018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via centrality analysi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164-173. <https://doi.org/10.5762/KAIS.2019.20.8.164>
- Joung, Kyoung-Hee (2007). Archival reference services based on market segment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3), 277-296. <https://doi.org/10.16981/kliss.38.3.200709.277>
- Jung, Sang-Jun, Yun, Bo-Hyun & Oh, Hyo-Jung (2019).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media-specific characteristics related to presidential records based on semantic network.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81-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1.181>
- Kang, Soon-Ae (2013).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istory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41-65.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041>

- Kim, Geon, Kim, Soo-Jung, Youn, Eun-Ha & Han, Hui-Jeong (2013). Research trend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199-229.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199>
- Kim, Gyu-Hwan & Nam, Young-Joon (200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217-239.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217>
- Kim, Hee-Jung (2005). A study on comparison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using author cocitation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207-224. <https://doi.org/10.4275/KSLIS.2005.39.3.207>
- Kim, Hee-Jung (2006). A study on the serial analysis and expansion of research areas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2), 5-25. <https://doi.org/10.14404/JKSARM.2006.6.2.005>
- Kim, Hee-Jung (2007). A study on analysis of types and roles of management & archives professionals abroad.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1), 129-143. <https://doi.org/10.14404/JKSARM.2007.7.1.129>
- Kim, Hee-Sop & Kang, Bo-Ra (2018).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opics of the academic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From 2001 to 20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183-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183>
- Kim, Ji-Hyun (2018).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How to expand the use and service of Archival information?.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eds.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theory and practice*. Seoul: Joen Geulteo, 305-348.
- Kim, Sin-IL & Han, Seung-Hee (2001). *Lifelong Education - Trends and Challenges*. Seoul: Kyoyookbook.
- Kim, Sung-Hwan & Oh, Hyo-Jung (2018). Domestic and overseas research trends analysis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based on onlin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65-189.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65>
- Kim, Sung-Tae (2005). A meta analysis of content analysis research in Korea: Focusing on methodological elements for better content analysis research. *Communication Theories*, 1(2), 39-67.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Archiving Terms*. Seoul: Yuksabipyungsa.
- Lee, Eun-Ju & Rho, Jee-Hyun (2020). Research outcomes and limitations of records and archives organiz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4), 129-1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4.129>
- Lee, Soo-Sang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49>
- Lee, So-Yeon (2011). Trends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and archives research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2), 7-31.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2.007>
- Lim, Seol-Hwa (202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Hannam University.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1). *Main Statistical Yearbook of the National Archives in 2021*. Daeje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 Oh, Se-Hoon (200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by analyzing

- journal articles and the cited Litera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379-408.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379>
- Park, Hee-J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records and archive management in North America through the review of Archivar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99-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99>
- Park, Jun-Hyeong, Ryu, Pum-Mo & Oh, Hyo-Jung (2018). Timeline-based topic trend analysis of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29-47.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029>
- Seol, Moon-Won (2008). Direction and task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Records In*, 3, 10-19.
- Seol, Moon-Won (2012).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records and archives classifi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3), 203-232. <https://doi.org/10.14404/JKSARM.2012.12.3.203>

